

대구 혁신도시 차질빛나

대책위 “일방적 보상계획 不容”... 주민설명회 무산

올 9월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갈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조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동구 신서동 일대에 조성될 혁신도시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탓.

여기다 새롭게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가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28일 오후 동구 반야월초교에서 도재준 대구시의원이 토지공사 용지팀장, 시 건축주택국장, 구청 도시건설국장, 해당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상금과 이주대책 등에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됐다.

또 대구시와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온 기존 혁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가 주민들의 불신임 투표를 통해 총 사퇴했고, 새롭게 꾸려진 대책위원회가 그동안의 협의내용과 성과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류경희 신임 혁신도시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이 불신임한 기존 대책위원회와 추진한 내용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혁신도시 입지 발표 직후 주민들이 이주, 보상, 세금, 등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1년이 넘도록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보상 계획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또 “주민들을 기만하는 설명회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뒤 “개발제한구역 선 해제 후 정당한 보상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올해 내 사업 착공은 불투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재준(동구4) 시의원은 “지역주민들이 혁신도시 조성 추진상황을 궁금해 해서 시청에 제의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는데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임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상의가 안 돼 설명회가 무산됐다”며 “앞으로 새로운 대책위원회의 업무가 정상화되면 주민설명회가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며, 어느 시기가 되면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jsbae@kbmaeil.com